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 탐색 및 척도 개발*

이진호** 한국예술종합학교

본 연구는 무용영재 지도자란 무엇이며, 무용영재 지도자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능력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색하여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2가지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첫 번째 연구방법은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무용영재 교육 및 지도자의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고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영재 지도자에 관한 5개의 개방형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무용영재 지도자 및 전문가 62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요인은 「인지적 측면, 교육적 측면, 정서적 측면」의 3가지 구성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인지적 측면」요인은 '무용영재 교육, 무용영재 특성, 해부학적 특징'의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고, 「교육적 측면」은 '교육의 독창성, 표현의 독창성, 새로운 시각'으로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은 '배려심, 성취감'의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두 번째 연구방법은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에서 도출된 원자료를 바탕으로 52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1차 설문조사 대상자는 무용영재 지도자 및 전문가, 전문무용수 200명으로 설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요인(인지적 측면, 교육적 측면, 정서적 측면)과 13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모형(3개의 구성요인과 13개의 문항)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 설문조사 대상과는 다른 대상자 150명을 선정하여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용영재지도자의 전문성 평가도구는 3요인(인지적 측면, 교육적 측면, 정서적 측면)과 13개의 문항으로 최종 채택하였다.

주요어 : 무용, 무용영재, 무용영재 지도자,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 구성요인 탐색, 평가도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영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예술분야에 영향을 미쳐 예술영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교육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무용분야에서도 영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용영재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 및 학급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용영재란 무엇이며, 무용영재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은 어떻게 이루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002)

** 교신저자: 2-jinhyo@hanmail.net

어저야 하는가?

우선 영재성 개념은 다양한 이견이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연구 성과가 제시되고 있지만(김태련, 김정휘, 조석희, 2004) 영재에 대한 일반적인 준거는 Renzulli(1978)의 평균이상의 능력과 과제집착력, 그리고 창의성의 세 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하나의 영역에서만 뛰어나기 보다는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재성을 발현하는 사람을 영재로서 정의하는 것이다. 무용영재 역시 Renzulli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의를 내려 본다면, 무용영재는 무용을 수행할 수 있는 평균이상의 능력과 무용과제에 대한 집착력, 그리고 창의성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이진호, 이진희, 박현정, 2011).

무용영재의 정의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는데(김기웅,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 2004; 이진호, 이진희, 박현정, 2011; 조은숙, 2003)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반인과 다른 독특한 특성과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며, 무용을 잘하게 하는 잠재된 능력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무용영재성 개념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무용영재성 구성요인 및 판별, 선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은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 김기웅(2005)의 연구를 통해 무용체격, 무용체력, 무용동작능력, 무용성향으로 분류하였고, 조주현(2007)의 연구에서는 신체, 예술적 감성, 발레지능 심리, 환경 요인으로 분류, 이진호, 박현정, 이진희(2011)의 연구는 신체적 조건, 무용영재의 표현 및 창의성, 무용영재의 무용태도, 동작수행능력의 4개의 구성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 외에도 무용영재 판별 및 선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무용영재 판별을 위한 교사, 부모, 학생용 판별도구가 개발(이진호, 2010, 2011, 2012)되었다.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무용영재성 개념 및 판별, 그리고 선발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학습자의 잠재적 재능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그 주체에 대한 대상 즉 '과연 누가 무용영재를 판별하고, 누가 무용영재를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도자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Renzulli(1968)는 영재교육 지도자에 대해 영재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며,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에 결정적인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언급하였다. 또한 영재 지도자는 영재 학생을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영재성에 근거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기능을 동시에 지녀야함도 강조하였다(Davis & Rimm, 2001).

선행연구에서도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고(곽영순, 2006), 영재 담당 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다양한 방면에서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이해명, 2006). 또한 아무리 뛰어난 영재성을 지닌 학생이라도 지도자의 적절한 배려와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재교육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유미림, 2002). 이는 무용영재 지도자 역시 무용영재성 뿐 만 아니라 무용영재 선발 및 판별, 그리고 교수법 등에 대해서도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무용영재가 갖추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발굴하는 지도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없다면 무용영재는 판별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초래되거나 무용영재로서 판별된 후에도 전문적인 지도자의 교육과정이 없다면, 무용영재로서의 재능은 더이상 발현되지 않고 그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무용영재의 판별 및 선발, 그리고 교육에 앞서, 무용영재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도자가 우수한 잠재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잘 판별할 수 있고 질 높은 영재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능한 자질을 갖춘 무용영재 지도자야말로 무용영재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홍원, 2000). 하지만 무용영재 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무용영재 판별방법으로 양질의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영재를 판별해내고 실질적인 무용영재교육을 제공하는 무용영재 지도자에 대한 양적, 질적

관리는 소홀하게 다루지고 있는 실정이다(이현주, 2011). 또한 무용영재 지도자는 별다른 자격증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교사가 영재교사 연수 없이 무용영재 교육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정현철, 2007)이기 때문에 무용영재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절실히 필요하다. 성공적인 무용영재 교육은 단순히 학생 개개인의 소질 개발을 위한 목적 뿐 만 아니라 지도자의 양성과 더불어 질적 수준이 높은 교수법을 개발함으로써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들이 양성될 것이다(서유경,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영재 양성에 있어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용영재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지 구성요인을 탐색하여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1단계: 개방형 설문조사의 연구대상

본 연구의 1단계 개방형 설문조사는 무용영재 판별에 관한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탐색하기 위하여 무용영재를 지도한 경험이 있거나 무용영재와 관련된 전문가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3 단계 설문조사는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한 구성요인의 타당성 검증과 문항의 모델에 대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무용영재 지도자 및 무용 전문가, 무용수 등으로 선정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와 같다.

표 1. 단계별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인원(명)	구성 비율(%)	인원(명)	구성 비율(%)	인원(명)	구성 비율(%)	
성별	여자	56	90.3	183	91.5	141	94
	남자	6	9.7	17	8.5	9	6
연령	20대	-	-	106	53	77	51.3
	30대	42	67.7	60	30	49	32.7
	40대	13	21.0	28	14	21	14
	50대	7	11.3	6	3	3	2
설문조사 대상	학사	13	21.0	114	57	92	61.3
	석사	33	53.2	57	28.5	42	28
	박사	16	25.8	29	14.5	16	10.7
무용경력	10년미만	20	32.3	11	5.5	5	3.3
	10년~20년미만	32	51.6	98	49	82	5.32
	20년~30년미만	8	12.9	70	35	51	34
	30년이상	2	3.2	21	10.5	12	8
총		62		200		150	

위와 같이, 1단계 개방형 설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총 62명으로 여성 56명(90.3%), 남성 6(9.7%)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대상의 구체적인 특성 중 연령은 30대 42명(67.7%), 40대 13명(21.0%), 50대 7명

(11.3%)로 30대의 지도자가 무용영재 교육 및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최종학력은 학사 13명(21.0%), 석사 33명(53.2%)명, 박사 16(25.8%)명으로 석사를 졸업한 지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용영재 교육 및 연구에 참여한 기간에 대한 질문은 5년 미만 20명(32.3%), 5년 이상~10년 미만 32명(51.6%), 10년 이상~20년 미만 8명(12.9%), 20년 이상 2명(3.2%)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200명의 연구대상자로서 여성 183명(91.5%), 남성 17(8.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 3단계 설문조사의 대상은 연구대상자와 같은 조건이나 중복되지 않으며 설문문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적절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의 구체적인 특성 중 연령은 20대 106명(53%)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30대 60명(30%), 40대 28명(14%), 50대 6명(3%)로 나타났다. 그들의 최종학력은 학사 114명(57%), 석사 57명(28.5%)명, 박사 29(14.5%)로 조사되었으며, 무용경력에 대한 질문은 10년 미만 11명(5.5%), 10년 이상~20년 미만 98명(49%), 20년 이상~30년 미만 70명(35%), 30년 이상 21명(10.5%)으로 나타났다.

3단계는 2단계 설문조사의 연구대상자와 같은 조건이나 중복되지 않으며 설문문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적절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0명의 연구대상자 중 여성 141명(94%), 남성 9(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대상의 구체적인 특성 중 연령은 20대 77명(51.3%)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30대 49명(32.7%), 40대 21명(14%), 50대 3명(2%)로 나타났다. 그들의 최종학력은 학사 92명(61.3%), 석사 42명(28%)명, 박사 16(10.7%)로 조사되었으며, 무용경력에 대한 질문은 10년 미만 5명(3.3%), 10년 이상~20년 미만 82명(5.32%), 20년 이상~30년 미만 51명(34%), 30년 이상 12명(8%)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1단계: 개방형 설문도구

1단계 조사도구인 개방형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에 관한 조작적 정의 및 무용영재의 특성, 무용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고 질적 분석에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5명과 무용영재 및 무용 전문가 5명이 논의한 후 초기 문항을 제작하였다. 문항제작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를 들어 김홍원, 조석희, 이윤식, 박주상(2000)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즉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전문적 자질, 인성적 자질과 김혜숙(2003), 소경희(2003)의 연구결과인 교과지식, 교수 기술, 정의적 태도 등의 내용을 분석 및 공통된 요인들을 범주화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동일한 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삭제 후 무용영재 지도자에 대한 적합한 문항들이 선별되었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항들도 한 가지 의미로 통합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문항이 개방형 설문문항으로 완성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의 <표 2>와 같다.

표 2. 개방형 설문문항 세부내용

문항	개방형 설문문항 내용
문항 1	무용영재 지도자로서의 적합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2	무용영재 지도자는 어떤 지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까?
문항 3	무용영재 지도자는 어떤 교육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까?
문항 4	무용영재 지도자는 어떤 정서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까?
문항 5	무용영재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2) 2, 3단계 설문도구

2단계 설문도구는 개방형 설문으로부터 나온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선정하여 선정하였다. 문항 구성은 3개의 요인 즉, 인지적 측면 20개, 교육적 측면 19개, 정서적 측면 13개의 문항으로 총 52개의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설문척도의 등급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않다-1점~보통이다-3점~매우그렇다-5점)로 제작하여 1점은 낮음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무용영재 지도자로서의 갖추어야할 전문성이 높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도록 구조화하였다. 또한 3단계 설문도구는 2단계에서 도출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들이 적합한 모형인지 알아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종 설문도구를 완성하였다.

3. 연구절차

1단계 연구절차는 무용영재 판별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무용영재 지도자 개념 및 전문성에 관한 내용 등을 탐색하였다. 그 다음은 설문에 적합한 응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개방형설문문항을 제작하고, 예비검사 및 무용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방형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무용영재 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구체적으로 응답할 것을 인지시킨 후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문을 통한 응답 내용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영재 판별에 대한 무용영재 지도자 및 관련 연구자들의 인식된 요인을 범주화하였다.

2단계 설문조사는 개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응답을 바탕으로 예비설문문항을 제작하여 설문대상자로 하여금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질문내용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를 산출하여 적합하지 않은 문항은 제거하거나 수정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3단계는 2단계에서 도출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시 신뢰도 계수가 산출되고 문항 수정을 거친 후, 개념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문항이 채택되었다.

4. 자료분석

1) 1단계: 귀납적 범주분석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한 응답자료에 대해 귀납적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로 첫째,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 단어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별 응답에 대하여 동일한 단어, 그리고 유사한 의미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둘째, 1차 분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전문가 10인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101개의 원자료로 범주화하였으며, 빈도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미가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모든 문항의 결과를 세부영역과 일반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고 2차 분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다 타당성 있게 분류되었으며, 요인을 명명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2) 2, 3단계 설문조사

1차 기초조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등의 기초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2차 기초조사에서는 무용인식의 개념을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문항 내적일치도를 검증하고자 신뢰도 검사(Cronbach's α)를 실시하였다. 3단계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AMOS 7.0을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1단계 : 개방형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

1) 개방형 설문 응답 분석 결과

(1) 무용영재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결정요인 분석

본 질문은 무용영재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본 질문은 무용영재 지도자의 자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확립할 수 있는 기초문항이라 할 수 있다.

설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 총 494개의 응답에서 29개의 원자료가 추출되었고, 내용이나 의미가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일치시키고 분류하여 인지적 측면, 교육적 측면, 정서적 측면의 3개 일반영역과 9개의 중영역(전문적 지식, 교육적 지식, 정확한 동작지도, 다양한 교육경험, 창의적 교육, 인내심, 인성, 소통, 책임감)으로 범주화되었다. 전체 29개의 원자료에서 얻은 일반 영역별 사례수와 백분율을 살펴보면 전문적 지식과 교육적 지식을 나타내는 '인지적 측면' 요인($N=172$, 34.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정확한 동작지도, 다양한 교육경험, 창의적 교육의 '교육적 측면' 요인($N=166$, 33.6%), 인내심, 인성, 소통, 책임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측면' 요인($N=156$, 31.6%) 순으로 범주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측면」은 '전문적 지식'과 '교육적 지식'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용영재 지도자가 무용영재를 지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무용영재의 특성과 차별화된 교육)은 꼭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무용영재 지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영재는 높은 지적 호기심, 높은 사고력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재지도교사는 영재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고려하여 그들의 재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신은해, 2012). 그 다음으로 「교육적 측면」은 '정확한 동작지도', '다양한 교육경험', '창의적 교육'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영재 교사는 이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계발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장영숙, 강경석, 1999)고 강조하고 있다. 이 중 '정확한 동작지도' 요인에서 지도자는 동작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실제로도 그 동작을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가 동시에 전달될 때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되고, 지도자의 동작과 자신의 동작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무용영재는 대부분 이른 시기에 판별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부터 정확하게 배워야 하고, 학생마다 무용의 수준과 신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풍부한 무용교육 경험이 있는 지도자에게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선행연구(이진호, 2010, 2011, 2012)에서 무용영재 특성 중 창의성 요인이 포함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무용영재 교육 시 창의적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의견들이 도출되어 영재 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에 대한 요인은 다양한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무용영재 지도자는 전문적 지식과 교육의 스킬 뿐 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hitlock & DuCette(1989)는 재교육에 대한 열정, 자기신뢰감, 학습촉진자로서의 역할, 지식의 활용능력, 성취지향성, 영재교육에 대한 헌신과 영재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노력 등의 차이에 따라 성취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내려 선천, 후천적인 성향에 따라 성취도의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무용영재는 이른 시기부터 교육받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어린 학생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의해 기

량 향상 또는 중도포기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무용영재 지도자 선정 시 정서적 측면 요인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무용영재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지적 측면에서의 요인

무용영재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인지적 측면에서의 능력을 묻는 질문에 총 461개의 응답에서 20개의 원자료가 추출되었고, 이에 따라 7개의 중영역(전문적 교육, 적절한 지도방법, 창의적 교육, 무용영재 관련 지식, 판별능력, 신체적 특성, 올바른 신체사용)과 3개의 일반영역(무용영재 교육, 무용영재 특성, 해부학적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전체 20개의 원자료에서 얻은 일반 영역별 사례수와 백분율을 살펴보면 전문적 교육과 적절한 지도방법, 창의적 교육을 나타내는 '무용영재 교육' 요인($N=237$, 51.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무용영재 관련지식, 판별능력에 대한 '무용영재 특성' 요인($N=132$, 28.6%), 신체적 특성, 올바른 신체사용을 나타내는 '해부학적 측면' 요인($N=92$, 20%) 순으로 범주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용영재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지적 측면에서의 요인은 「무용영재 교육, 무용영재 특성, 해부학적 측면」의 3가지 구성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우선 「무용영재 교육」은 '전문적 교육', '적절한 지도방법', '창의적 교육'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는 무용영재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을 인지하고 무용영재 개개인의 특성 및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도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윤미라, 강충열(2009)은 초등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교과지식, 교수전략, 영재아 이해, 상호협력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였다. 특히 응답의 원자료에서는 무용지도자는 본인의 창의력이 뛰어나 다양한 동작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표출할 수 있는 독창적인 지도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이러한 의견만으로도 무용영재 지도자는 일반 무용지도자와 구분되어야 하며, 무용영재 지도자 역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무용영재 특성」은 '무용영재 관련지식', '판별능력'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무용영재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무용영재 특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따른 판별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부학적 측면」은 '신체적 특성', '올바른 신체사용'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용수에서의 신체의 의미, 신체와 동작의 조화,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시각적 아름다움 등이 얼마나 중요성인지 보여주는 내용이며, 지도자는 신체에 대한 지각을 통해 올바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3) 무용영재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적 측면에서의 요인 분석

무용영재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교육적 측면에서의 능력을 묻는 질문을 분석한 결과, 총 332개의 응답에서 18개의 원자료가 추출되었고, 이에 따라 9개의 중영역(표현력 유도능력, 지도방법의 차별화, 안무구성능력, 음악의 재구성, 표현방법의 다양성, 다양성 추구)과 3개의 일반영역(교육의 독창성, 표현의 독창성, 새로운 시각)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전체 18개의 원자료에서 얻은 일반 영역별 사례수와 백분율을 살펴보면 표현력 유도능력, 지도방법의 차별화를 나타내는 '교육의 독창성' 요인($N=175$, 52.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안무구성능력, 음악의 재구성, 표현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표현의 독창성' 요인($N=120$, 36.1%), 다양성 추구를 나타내는 '새로운 시각' 요인($N=37$, 11.1%) 순으로 범주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용영재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적 측면에서의 요인은 「교육의 독창성, 표현의 독창성, 새로운 시각」의 3가지 구성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우선 「교육의 독창성」은 '지도방법의 차별화', '표현력 유도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즉, 무용영재 지도자는 무용영재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과제와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이들의 잠재력을 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Hansen & Feldhusen,

1994), 주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에서 자신의 교수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Porter & Smithson, 2001; Remilliard, 2005)는 내용을 검증해줌으로써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표현의 독창성」은 ‘안무구성능력’, ‘음악의 재구성’, ‘표현방법의 다양성’, 「새로운 시각」은 ‘다양성 추구’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이진호, 2011)에서는 무용영재의 창의성에 대해 동작의 구성능력과 음악성이 뛰어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무용영재 지도자가 무용영재 교육 시 창의성과 관련된 교육 즉, 안무구성능력과 음악적 이해, 표현방법의 다양성, 새로운 사고전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도출됨으로써 창의적 측면에서 무용영재의 특성과 지도자로서의 교육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용영재는 내재된 무용창의성이 외부로 표출되는 정도에 따라 무용영재성으로 판별되었다면, 무용영재 지도자는 학생의 창의성을 표출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에 따라 무용영재 지도자로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별의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4) 무용영재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서적 측면에서의 요인 분석

무용영재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인지적 측면에서의 능력을 묻는 질문을 분석한 결과, 총 292개의 응답에서 16개의 원자료가 추출되었고, 이에 따라 5개의 중영역(인성, 인내심, 소통, 열정, 자신감)과 2개의 일반영역(배려심, 성취감)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전체 16개의 원자료에서 얻은 일반 영역별 사례수와 백분율을 살펴보면 인성, 인내심, 소통을 나타내는 ‘배려심’ 요인($N=195$, 66.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열정, 자신감에 대한 ‘성취감’ 요인($N=97$, 33.2%) 순으로 범주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용영재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서적 측면에서의 요인은 「배려심, 성취감」의 2가지 구성요인으로 「배려심」은 ‘인성’, ‘인내심’, ‘소통’, 「성취감」은 ‘열정’, ‘자신감’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Gowan&Bruch(1971)는 영재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열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고, Nelson&Cleland(1975)는 열정, 인내력, 창의력, 융통성 및 지원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영재들이 보이는 완벽주의성향, 민감한 정서, 뛰어난 유머감각, 도덕적 정의감 발달 등의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신은혜, 2012). Whitlock과 DuCette(1989)는 영재교육 담당교원들이 일반 학생 담당 교원들보다 열정, 헌신성,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 지식 적용능력, 성취지향성, 그리고 영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능력 등에서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지적인 능력보다는 정서적인 태도에 더욱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진호(2012)의 연구에서는 무용영재의 특성 중 동기와 열정, 인내력, 자신감, 집중력, 흥미 등은 아동기에 발달되는 자기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기개념은 일단 만들어지면 변화되기 어려운 성질이며,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유능감을 비롯한 여러 심리적인 요인들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자기개념 형성은 아동기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이렇듯 무용영재 지도자는 무용영재의 정서적 특성을 잘 인지하여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방식을 제공하여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무용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무용영재 지도자 양성을 위한 방안 분석

무용영재 지도자 양성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을 분석한 결과, 총 191개의 응답에서 18개의 원자료가 추출되었고, 이에 따라 6개의 구성요인(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제공, 무용영재 연구 및 개발, 제도적 지원, 체계적인 교육실시, 교육과정 구축, 무용영재 기관 설립)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전체 18개의 원자료에서 얻은 일반 영역별 사례수와 백분율을 살펴보면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제공 (N=50, 26.2%), 무용영재 연구 및 개발(N=47, 24.6%), 제도적 지원(N=27, 14.1%), 체계적인 교육실시 (N=24, 12.6%), 교육과정 구축(N=23, 12%), 무용영재 기관 설립(N=20, 10.5%) 순으로 범주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용영재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제공, 무용영재 연구 및 개발, 제도적 지원, 체계적인 교육실시, 교육과정 구축, 무용영재 기관 설립」의 6가지 구성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영재 지도자의 양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남희(2003)는 영재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 경제적, 기술적인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영재교육에 적합한 도구와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박은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영재 지도자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평가 방법 개발, 영재담당 전문교사 도입,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영재연수 및 홍보, 전담교사의 확대, 학생, 학부모까지의 연수 및 홍보를 교육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평가방안 개발에 대한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김은미(2009)은 영재와 영재부모에 대한 상담을 연수프로그램 속에 포함, 영재의 심리와 정서 및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연수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부당국의 지원과 정책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영재 지도자의 양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과 동시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치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무용영재 지도자 양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이다.

2) 예비문항 구성

선행된 개방형 설문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무용영재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은 3개의 구성요인(인지적 측면, 교육적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인지적 측면」은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적인 지식에 관한 요인으로, 무용영재 특성 및 교육에 대한 지식, 무용 동작 및 수행에 관한 정확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이며, 둘째, 「교육적 측면」은 무용영재 교육 시 창의적 교육방식에 관한 요인으로, 무용영재 특성에 따른 교육방법의 다양성 및 차별화, 잠재된 능력을 외부로 표출해내는 능력, 표현의 독창성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정서적 측면」은 무용영재 지도자가 수업참여 및 학생에 대한 태도, 마음에 관한 요인으로써 3가지 구성요인에 포함된 하위 내용들의 원자료 반응을 토대로 73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최종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미가 중복되어 다른 개념에 포함되거나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 개념 구조에 부적당한 문항으로 판단되는 21개의 문항을 제외한 52개의 문항이 확정되었다(표 3).

표 3. 무용재능 탐지도구의 예비문항구성

일반영역	세부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인지적 측면	무용영재 교육	1,2,3,9,10,11,17,18,,23,24,25,26,32,33,34,38,39,44,45,51	20
	무용영재 특성		
	해부학적 특징		
교육적 측면	교육의 독창성	4,5,6,12,13,19,20,21,27,28,29,35,40,41,46,47,49,50,52	19
	표현의 독창성		
	새로운 시각		
정서적 측면	배려심	7,8,14,15,16,22,30,31,36,37,42,43,48	13
	성취감		
대상자 특성변인		성 / 연령 / 전공 / 무용경력 / 직업	

위의 표와 같이, 첫 번째 요인인 ‘인지적 측면’은 20개 문항, ‘교육적 측면’ 19개 문항, ‘정서적 측면’ 요인은 13개 문항으로 총 3개 요인에 대한 5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반응형태는 다중-문항척도형태의 등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단계 Likert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2. 2단계 기초조사 결과 분석

1) 기술통계 분석결과

1단계 조사인 개방형 범주 분석을 통해 선정된 52개의 예비문항이 3개의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 요인에 상응하는 문항군집을 적절히 이루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52개의 문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자료 분포에 대한 통계치인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들의 평균이 1.5이하와 5.5이상인 문항은 없었고, 표준편차가 .10이하인 문항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첨도와 왜도 분석 결과, 52개의 문항 모두 왜도의 절대값은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은 7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항은 모든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어떠한 문항도 삭제되지 않았다. 문항분석을 통해 나온 52문항의 1차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α)는 .93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하지만 척도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수정된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가 .40이하인 17개 문항(q1, q2, q7, q9, q17, q18, q24, q32, q34, q36, q38, q41, q44, q48, q49, q51, q52)은 삭제되었다. 1차 신뢰도 분석을 통해 삭제된 17개 문항을 뺀 35개의 문항에 대해 2차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α)는 .925이고 척도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수정된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가 .40이하인 3개 문항(q8, q35, q43)은 삭제되었다. 삭제된 3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32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3차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α)는 .923이고 척도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수정된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가 .40이하인 2개 문항(q11, q40)은 삭제되었다. 삭제된 2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30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4차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α)는 .921이고 척도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수정된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가 .40이하인 1개 문항(q31)은 삭제되었다. 삭제된 1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29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5차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 삭제 시 신뢰도가 상승하는 문항과 수정된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 .40이하인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전체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1차		2차		3차		4차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문항삭제시 신뢰도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문항삭제시 신뢰도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문항삭제시 신뢰도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문항삭제시 신뢰도계수
Q1	.395	✓	.933					
Q2	.364	✓	.933					
Q3	.489		.933	.442	.924	.429	.922	.424
Q4	.422		.933	.462	.924	.468	.921	.467
Q5	.459		.933	.524	.923	.557	.920	.558
Q6	.429		.933	.463	.924	.485	.921	.491
Q7	.336	✓	.934					
Q8	.428		.933	.382	✓	.924		
Q9	.197	✓	.935					
Q10	.574		.932	.592	.922	.585	.920	.578
Q11	.429		.933	.412	.924	.398	✓	.922

문항	1차		2차		3차		4차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문항삭제시 신뢰도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문항삭제시 신뢰도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문항삭제시 신뢰도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문항삭제시 신뢰도계수
Q12	.476	.933	.490	.923	.493	.921	.485	.919
Q13	.507	.932	.547	.923	.544	.920	.549	.918
Q14	.530	.932	.580	.922	.568	.920	.552	.918
Q15	.445	.933	.427	.924	.432	.922	.429	.919
Q16	.444	.933	.434	.924	.431	.922	.426	.919
Q17	.378	✓	.933					
Q18	.391	✓	.933					
Q19	.481	.933	.472	.924	.458	.921	.461	.919
Q20	.572	.932	.582	.922	.593	.920	.593	.917
Q21	.565	.932	.611	.922	.620	.919	.624	.916
Q22	.432	.933	.468	.924	.472	.921	.477	.919
Q23	.507	.932	.478	.923	.455	.921	.446	.919
Q24	.391	✓	.933					
Q25	.511	.932	.445	.924	.457	.921	.467	.919
Q26	.472	.933	.469	.924	.456	.921	.448	.919
Q27	.608	.932	.601	.922	.598	.920	.601	.917
Q28	.517	.932	.542	.923	.560	.920	.559	.918
Q29	.597	.932	.628	.922	.627	.919	.626	.917
Q30	.545	.932	.534	.923	.523	.920	.517	.918
Q31	.432	.933	.413	.924	.404	.922	.395	✓ .920
Q32	.393	✓	.933					
Q33	.627	.931	.624	.922	.624	.919	.628	.916
Q34	.385	✓	.933					
Q35	.430	.933	.381	✓ .925				
Q36	.344	✓	.934					
Q37	.476	.933	.475	.924	.474	.921	.468	.919
Q38	.335	✓	.934					
Q39	.609	.932	.609	.922	.608	.919	.618	.917
Q40	.400	.933	.415	.924	.396	✓ .922		
Q41	.368	✓	.933					
Q42	.465	.933	.482	.923	.462	.921	.449	.919
Q43	.425	.933	.377	✓ .925				
Q44	.341	✓	.934					
Q45	.431	.933	.442	.924	.455	.921	.466	.919
Q46	.511	.932	.505	.923	.518	.920	.529	.918
Q47	.453	.933	.446	.924	.439	.922	.435	.919
Q48	.381	✓	.933					
Q49	.346	✓	.933					
Q50	.509	.932	.478	.923	.467	.921	.471	.919
Q51	.394	✓	.933					
Q52	.370	✓	.933					
신뢰도 계수 $\alpha = .934$		신뢰도 계수 $\alpha = .925$		신뢰도 계수 $\alpha = .923$		신뢰도 계수 $\alpha = .921$		

2)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는 구성요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측정변수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의미 있는 구조 추출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공통요인분석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미 설정된 3개 구성요인의 수렴-변별 타당성이 가장 높은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베리맥스가 수반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추출된 문항의 구조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이진희, 2011).

탐색적 요인분석의 대상은 앞서 문항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도출된 29개의 문항이다. 요인분석 시 문항삭제 기준은 극단치로 간주될 수 있는 공유값(communality)이 .40이하인 문항, 각 변수와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주는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의 절대값이 .30이하인 문항, 변수가 한 요인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즉 다수 요인과 상관을 보이는 문항(박현정, 2009)으로 설정하였으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총 7차례의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표 5).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정서적 측면	V16	.752	-.222	.292
	V37	.673	.257	.034
	V14	.664	.086	.272
	V15	.530	.250	.172
	V30	.528	.478	.016
인지적 측면	V23	-.126	.775	.269
	V3	.322	.705	-.004
	V25	.021	.629	.264
	V19	.331	.555	-.035
교육적 측면	V45	-.118	.061	.913
	V5	.328	.047	.677
	V28	.317	.234	.587
	V47	.252	.140	.473
요인 신뢰도 계수 (α)		.713	.660	.676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측정 = .62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1119.226, $df=78$, $Sig=.000$

위의 표와 같이, 요인 부하량의 절대값이 .30이하인 문항과 공유값이 .40이하인 2개의 문항(q6, q46)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총 27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6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에 만족하여 3개의 요인과 13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13개에 대한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합성 측정치인 KMO값(Kaiser-Meyer-Olkin)은 .624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p 는 .000(1119.226, $df=78$, $Sig=.000$)으로 나타나 적합한 분석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1요인인 '정서적 측면'에 대한 5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신뢰도 계수(α)는 .71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요인인 '인지적 측면'에 대한 4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α)는 .660으로 나타났으며, 3요인인 '교육적 측면'에 대한 4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α)는 .676으로 나타났다.

3. 3단계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개의 요인과 그에 속한 13개 문항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적합도 기준에 의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소 간 평균차이(RMR)는 .043로 도출되었고, 비교 적합도지수(CFI)는 .803, 비표준 부합치(TLI)는 .819, 기초적합도지수(GFI)는 .856, 요인 간 평균차이(RMSEA)는 .122로 나타났다(표 6). 이는 적합도 지수의 기준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모델의 적합도가 성립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3요인 13문항의 요인구조모형은 <그림 1>와 같다.

표 6. 3요인 13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Q(x^2 / df)$	RMR	CFI	TLI	GFI	RMSEA
13문항	2.314	.043	.803	.819	.856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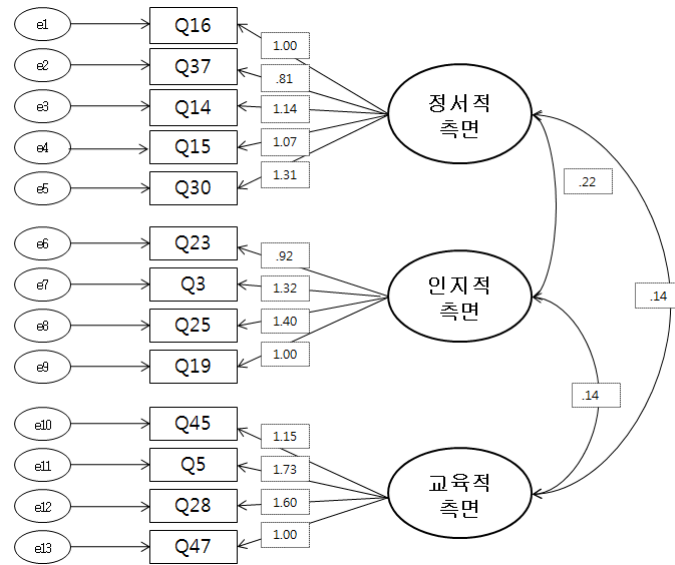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3요인의 13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모형

따라서 확정된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 문항은 ‘정서적 측면’ 5개 문항, ‘인지적 측면’ 4개 문항, ‘교육적 측면’ 4개 문항의 총 3개의 요인에 대한 13개 문항이 최종 확정되었다(표 7).

표 7.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 구성요인별 평가별 문항(최종형)

요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신뢰도값
요인 1 정서적 측면	V16	무용영재 지도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839
	V37	무용영재 지도자는 자신의 교육방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V14	무용영재 지도자는 배려심 좋아야 한다	
	V15	무용영재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V30	무용영재 지도자는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요인 2 인지적 측면	V23	무용영재 지도자는 무용영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768
	V3	무용영재 지도자는 무용영재로써 적합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V25	무용영재 지도자는 무용영재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V19	무용영재 지도자는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요인 3 교육적 측면	V45	무용영재 지도자는 현장에서 동작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742
	V5	무용영재 지도자는 동작을 독창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V28	무용영재 지도자는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V47	무용영재 지도자는 자유롭게 표출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영재를 판별하고 교육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도자의 전문성에 관한 내용으로, 무용영재 지도자란 무엇이며, 무용영재 지도자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능력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영재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인지적 측면, 교육적 측면, 정서적 측면」의 3가지 구성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인지적 측면」요인은 ‘무용영재 교육, 무용영재 특성, 해부학적 특징’의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고, 「교육적 측면」은 ‘교육의 독창성, 표현의 독창성, 새로운 시각’으로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은 ‘배려심, 성취감’의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무용영재 지도자의 자질은 3개의 요인에 대한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통해 판별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3개의 요인은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교육적 측면으로 도출되었는데 「정서적 측면」요인은 ‘무용영재 지도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무용영재 지도자는 자신의 교육방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무용영재 지도자는 배려심 좋아야 한다, 무용영재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무용영재 지도자는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의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지적 측면」요인은 ‘무용영재 지도자는 무용영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무용영재 지도자는 무용영재로써 적합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무용영재 지도자는 무용영재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무용영재 지도자는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의 4가지 문항으로 구성, 「교육적 측면」요인은 ‘무용영재 지도자는 현장에서 동작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무용영재 지도자는 동작을 독창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무용영재 지도자는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무용영재 지도자는 자유롭게 표출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의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 척도개발은 무용영재성 개념 및 교육 방법, 적성 등의 정도를 평가해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무용영재 교육 및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인 학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제 교육현장에 투입되어 질 높은 무용영재 교육을 위해서 자질있는 무용영재 지도자를 판별하고 양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무용영재 연구를 분석하면 대부분 무용영재 개념 및 판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있다. 앞으로는 무용영재 판별 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제 무용영재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 및 방법, 환경 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무용영재 육성방안을 위한 교육적 측면의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무용영재 양성은 무용영재를 위한 교육 뿐 만 아니라 무용영재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양성에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용영재 양성은 곧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무용영재를 질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수법 개발 등을 연구함으로써 전문적인 무용영재 지도자를 실제 교육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곽영순(2006). 과학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방안 및 수석교사 제도에 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13(1), 47-61.
- 김기웅,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2004). 무용영재판별도구 개발연구 I. 미간행.
- 김남희(2003). 정보과학 영재 교사 양성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2009). 미술영재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분석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련, 김정휘, 조석희(2004). 영재교육 : 심리학과 교육학에서의 조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홍원, 조석희, 이윤식, 박주상(2000). 영재교육 담당 교원 양성 및 임용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2000-1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혜숙(2003). 교원 전문성과 질의 개념 및 개선전략 탐색. *교육학연구*, 41(2), 93-114.
- 박은경(2012). 음악영재선발의 관찰추천제도에 대한 교사인식과 개선방안연구 : 서울시 교육청 시행 제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2009). 무용정서표현성 구인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유경(2009). 과학 영재 담당 교사를 위한 자기 평가 도구의 개발과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경희(2003). 교사 전문성의 재개념화 방향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과정연구*, 21(4), 77-96.
- 신은혜(2012). 초등수학 영재 학급 지도교사의 요건에 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 김기웅 (2005). 무용영재성의 요인탐색. *한국체육학회지*, 44(4), 745-752.
- 유미림(2002). 각국 영재교육의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윤미라, 강충열(2009). 초등학교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 분석. *초등교육학회지*, 16(2), 103-122.
- 이진효(2010). 무용영재성 평가범주 개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진효(2011).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 개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진효(2012). 무용영재성 자기진단 도구 개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진희(2011). 무용인식 조사척도 개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효, 이진희, 박현정(2011).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에 관한 경험적 탐색. *한국무용기록학회*, 23, 83-100.
- 이현주(2011). 개념도 연구법을 이용한 바람직한 초등학교 영재교사의 자질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명(2006).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장영숙, 강경석(1999).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개발에 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9(2), 1-22.
- 정현철(2007). 영재교육자료(중등-수학-고급). 한국교육개발원.
- 조은숙(2003). 발레 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연구. 미간행. 한국 교육개발원.
- 조주현(2007). 발레 영재성 구성요인의 탐색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07, 18(1), 15-31.
- Davis, G. A. & Rimm, S. B.(2001). *Education of the Gifted & Talented*(5th ed). 이경화, 최병연, 박숙희(공역). 영재교육. 서울, 박학사.
- Nelson, J. B., & Cleland, D. L.(1975). The role of the teacher of gifted and creative children, In Barbe, W. B., & Renzulli, J.S. (ed.), *Psychology and Education of the gifted*(439-448). NY: Irington Publishers, Inc.
- Porter, A. C., & Smithson, J. L. (2001). Defining, developing, and using curriculum indicators: Consortium for policy research in education (Report # RR-048), University of Pennsylvania.
- Renzulli, S. (1968). Identifying key features in programs for the gifted. *Exceptional Children*, 35, 217~221.
- Renzulli, J. S.(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of definition. *Phi Delta Kappan*. November 1978, 60, 180-184, 261.
- Whitlock, M.S., & DuCette, J. P.(1989). Outstanding and average teachers of the gifted A comparative study. *Gifted Child Quarterly*, 33(1), 15~21.

ABSTRACT

Exploring Professionalism and Developing scale of dance giftedness leader**Lee, Jin-Hy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 was taken to illuminate the constructs of professionalism of the leaders of dance gifted children followed by developing a test which can aptly measure the leaders of dance gifted children. For the professionalism of the leaders of dance gifted children constructs, a 5-item un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administered to 62 professionalism of dance gifted children. Data was subjected to a qualitative analysis, rendering 3 conceptual factors; perceptual aspect, educational aspect, emotional aspect. Based on the qualitative analysis, 3 factors of leaders of dance gifted children were operationally defined and 52 test items were initially developed accordingly. The preliminary test data obtained from 200 dance specialist and university students was analyzed, using item analysis and a series of reliability analyses. In order to substantiate the construct validity, three exploratory factor analyses were conducted for 52 items, resulting in 13 items of 3 factor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ducted for 150 dance specialist and dance majors to test the goodness-of-fit of 3 factor model revealed a satisfactory level.

Key words : Dance, Gifted in Dance, leaders of dance gifted children, Exploring Professionalism of dance giftedness leader, Developing scale of dance giftedness leade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B5A07042002)

논문투고일: 2017. 11. 29
논문심사일: 2017. 12. 19
심사완료일: 2017. 01. 12